

호텔화재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호텔과 화재위험

호텔에는 습성(習性)이 판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은 대개 유락(遊樂) 기분에 젖어 안전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기용품, 가연성 물질, 가스등 발화·인화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물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므로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투숙객들에게는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당황하여 혼란상태가 커지고, 화염·연기·가스가 계단·승강기 통로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되는 관계로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기 쉬운 특색도 있다.

근래에는 호텔의 고층화, 대형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만 가는데, 우리의 기억에도 아직 새로운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71. 12. 25: 사망 163명, 부상 63명), 서울 뉴남산호텔 화재(74. 10. 17: 사망 19명, 부상 45명), 서울 브라운호텔(대왕코너) 화재(74. 11. 3: 사망 88명, 부상 33명), 대구 금호호텔 화재(82. 12. 29: 사망 10명, 부상 19명), 마산 고려호텔 화재(83. 10. 2: 사망 10명, 부상 36명) 등은 호텔화재의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몇가지 실례라고 하겠다.

2. 호텔화재의 원인

호텔과 여관의 화재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호텔·여관의 화재 건수는 70건이었으나 그것이 근래에는 76건(81년), 108건(82년), 112건(83년).....으로 늘어났다.

특수건물의 예를 보아도 1979년부터 1983년사이 5년간 화재 발생율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호텔이었으며, 같



은 기간 중 화재(건당(件當)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물건도 역시 호텔이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작성한 특수건물의 최근 화재원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호텔 화재는 주로 전기및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어 가연성 내장재(內裝材)와 방화구획(防火區劃) 불량 등의 요인으로 연소(延燒)가 확대되고 설치된 소화설비나 피난계단 등의 피난시설이 유

효하게 이용되지 못함으로써 더욱 큰 피해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몇몇 호텔의 예에서 보논바와 같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은 유사시 소규모의 피해로 그칠 수 있었던 피해를 예상 밖의 큰 피해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사실, 소방법·건축법등 안전 관계법에서 정한 각종 설비·기기·시설이 약간 부족하거나 미비되었다고 해도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안전훈련을 시켜 놓았다고 하면 이러한 약점을 크게 커버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는 실제로 많이 있었다. 서울 L호텔에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훈련시킨 속칭「특공대」의 기민한 활동으로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3. 방화 체크리스트(Checklist)

호텔의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의 점검항목(Checklist)은 호텔의 시설·규모, 종업원의 수등 여러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성, 사용하여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영국의 방화협회(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작성한 샘플을 참고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한가지 샘플을 제시한다.

